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楸泰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제 261 호 (우: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602호 (내수동 세종로 대우빌딩 북합동) www.cheongjuhan.net Tel : 720-6370~1 Fax : 720-9215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중앙회 2019년도 하반기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조직 정비, 실질적인 운영 및 역할 기대

조직 및 임원 정비사항 인준, 뿌리공원 개수 조형물 유래비문 등 세부사항 확정



이사회에서 추태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문중의 번영과 승조를 표상화하여 새롭게 개수된 청주한씨 조형물(뿌리공원 37번)

중앙종친회(회장 추태)는 지난 8월 30일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추태회장을 비롯 선교, 승남감사와 연동, 동수, 상기, 동경부회장 등 4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하반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정관 일부조항의 개정에 따른 중앙회 조직과 임원 선임 및 해촉 등 후속 정비 시행의안의 인준에 이어 뿌리

공원에 새롭게 개수되는 조형물의 유래비문과 규격 등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정 승인한 후 앞으로 이사회가 종사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추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근거리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하

전하고 무강왕릉과 왕비릉의 수호보전, 세일재와 청한각 등 유적의 보수유지, 뿌리공원 조형물의 개수추진, 장학재단의 기금확충 진행사항 등 주요종사 추진현황을 설명한 후 경제적인 상황과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해 재원조달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임

원분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종원분들께도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에 홍보와 독려로 힘써줄 것을 재차 강조하고 당부하였다.

한편 중앙종친회는 임원선임 및 해촉사항 등 급번 이사회 결의내용은 안내문을 통해 공지할 것임을 밝혔다.

올 기해년 시조부군 세향봉행일은 양력 10월 28일 넷째 주 월요일

추태회장, 청장년·청소년을 포함 남녀노소 많은 후손들이 참석하도록 독려바라



시조 태위 위양공부군의 기해년 세향봉행일은 10월 28일 (음력 10월 1일) 월요일입니다.

“젊은 후손들에게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주고, 종사 계

승과 함께 송조돈종(崇祖敦宗)의 값진 덕목을 체득하고 느끼는 좋은 기회이자 100만 청주한문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의 시조 탄생유지 청한각(淸韓閣)과 뿌리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청주한씨 조형물도 둘러

보신다면 명문 청주한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도 더욱 고취될 것입니다. 종파문중과 시도의 회장단 및 임원 등 여러 어른들께서는 오는 10월 28일에 봉행되는 시조부군 세향에 청장년·청소년을 포함 한문의 후손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함께 대동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안내

- ◎ 회비·헌성금·종보대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 족보구입·수단금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 장학기금 출원
국민은행 009-25-0015-377
재단법인청한장학회
- ◎ 무강왕릉 수호기금
국민은행 009902-04-323878
한추태

익산 쌍릉 소왕릉 발굴결과 공개

신라에서 온 선화공주는 익산 쌍릉에 없었다!

석실 내부 깨끗하고 문자 없는 묘표석 2개 발견

100년 만에 재 발굴된 익산 쌍릉의 소왕릉에 선화공주의 흔적은 없었다.

신라 진평왕의 딸로 백제의 30대 임금 무왕(재위 600~641)의 왕비가 되어 전북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설화로 익산 시에서 주장하는 역사적 인물이 선화공주다. 그가 묻혔다고 옛 부터 전해져온 익산 시 석왕동 쌍릉 소왕릉 내부를 최근 발굴 조사한 결과 무덤주인이 선화공주임을 입증하는 유물이나 자취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소왕릉을 조사해온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완규)는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9월 20일 소왕릉의 유해 안치 공간인 석실 부분까지 파 들어가 내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선화공주의 존재를 실증하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굴조사 설명회에서 밝혔다.

소왕릉은 1917년 12월 일본 학자 야쓰이 세이이쓰가 쌍릉의 다른 큰 무덤 대왕릉과 함께 일주일간 조사했으나, 1920년 낸 약식보고문에서 “도굴피해가 심해 어떤 부장품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힌 바가 있듯이 “일제강점기 발굴 흔적과 그 이전에 석실 천장 귀퉁이를 뚫고 들어온 도굴 흔적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완규 소장은 “석실 내부는 쓸려간 것처럼 깨끗한 상태였고, 관을 놓는 관대가 새로 확인된 것 외에 아무 유물도 없었고, 무덤의 봉토 내부와, 석실 입구를 막는 폐쇄석 앞 1m 지점에서 무덤을 지키려는 용도로 추정되는 묘표석(표지석) 두 점을 각각 찾아냈다”고 밝혔다.

두 표지석들은 백제시대의 무덤은 물론, 한반도의 고대 고분들 가운데서도 처음 확인되는 유물로, 야쓰이의 1920년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출토품이다. 봉토 내부에서 누어진 채 발견된 표지석(길이 110cm, 너비 56cm)은 길쭉한 사다리형으로 골모 모양의 석주 형식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석실 입구 앞에서 비스듬히 세워진 채 발견된 또다른 표지석(길이 125cm, 너비 77cm)은 앞면이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뒷면은 약간 불룩한 비석 모양을 한 것

이 특징이다.

연구소 측은 “두 묘표석을 적외선 촬영했으나 표면에 글자가 새겨진 흔적은 찾지 못했다”면서 “국내 고대 무덤에 각자가 없는 묘표석을 묻은 사례는 만주 집안의 고구려 고분인 우산하 1080호분 밖에 없다고 하였다.

진실을 왜곡한 짜맞추기식 결과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한편 연구소는 소왕릉 조사결과 선화공주를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인물을 입증하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선화공주의 설화는 여전히 유효하고 실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 소왕릉의 봉분은 지름 12m, 높이 2.7m 정도로 암갈색 점질토와 적갈색 모래질점토를 번갈아 쌓아올린 판축기법을 썼는데, 대왕릉 판축기법과도 유사하고, 석실은 백제 말기 사비시대 왕릉의 전형적인 열개인 육각형 단면의 굴식돌방(횡혈식석실)이며 길이 340cm, 폭 128cm, 높이 176cm로 대왕릉의 석실 규모(길이 400cm, 폭 175cm, 높이 225cm)보다 작으나 측벽 2매, 바닥석 3매, 덮개돌 2매, 후벽 1매, 고임석 1매의 짜임새는 같으며, 석재 가공 또한 대왕릉 처럼 정교하다. 봉토가 판축된 것은 물론, 정교하게 돌판을 다듬어 만든 육각형 석실 구성까지 대왕릉과 거의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왕릉은 부여의 능산리 왕릉급 고분들과 비교해 봐도 봉토나 석실의 규모, 품격 등에서 확실한 왕릉급 무덤인 만큼 대왕릉과 더불어 무왕과 그의 왕비가 묻힌 능원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한 사실에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결론 맺음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대왕릉 재발굴 당시 나온 인골이 ‘620~659년 중신 60대 전후 남성’이란 분석결과를 내놓으며 무덤 주인이 무왕으로 사실상 확정한 바 있어 청주한문과 관심 있는 다수의 학계관계자로부터 강력한 반향과 비난에 직면하고 있기



소왕릉 석실 내부

때문이다.

익산시 팔봉면 석왕동에 소재한 익산쌍릉은 사적 제87호(지정면적 1만 3,884㎡)로 2개의 봉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쌍릉으로 불리고 있다. 북쪽의 것을 ‘대왕묘’ 약 180여m 떨어져 있는 남쪽의 것을 ‘소왕묘’라 하는데, 대왕묘는 무강왕릉(武康王陵), 소왕묘는 왕비릉으로서 청주한씨문중에서 매년 음력 3월 15일 춘계제향을 봉행해 오고 있다.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앞으로도 청주한문의 입장을 존중하고 발굴사업 진행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약속한바 있다.

교육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객관적인 진실과 사실적 근거에 의한 현

명한 판단을 세심 기대하면서 진실이 왜곡된 짜맞추기식 결과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강력한 규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해 본다.

무강왕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이자 삼한(三韓)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운 태조(太祖)이며,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 우랑(友諒)이 상당(上黨)한씨(청주한씨)가 됨으로써 청주한씨의 선조가 된다. 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이며 명문중의 명문이다.

원왕의 장남 우평(友平)은 북원(北原) 선우(鮮于)씨가 되고 3남 우성(友誠)은 덕양(德陽) 기(奇)씨가 되었다.



석비형 묘표석



석주형 묘표석



소왕릉 발굴현장 전경

청주한씨 상징 조형물 개수 및 제막행사 성황리에 개최



제막을 하고 있는 내빈 및 회장단



추태회장의 인사말



조형물 제막 후 기념촬영

청주한문의 번영과 송조돈종의 의미를 새롭게 표상화 대전 중구청장 등 내빈 및 전국 200여명의 종원 참석

제11회 효문화뿌리축제일정에
맞춰 9월 28일 뿌리공원 현지서

중앙종친회(회장 楸泰)는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시 중구 침산동소재 뿌리공원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을 비롯한 성씨문중회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계자대표 등 내빈과 청주한문의 효동고문, 추태회장, 연동수석부회장, 종파문중 및 광역시도 회장단을 비롯해 경향각지에서 참석한 일가분들, 효문화뿌리축제 내방객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새롭게 개수된 청주한씨 상징 조형물의 준공 및 제막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청주한씨 상징 조형물은 1997년 10월 뿌리공원 개장과 함께 37번 구역에 조성되어 왔지만, 20여년의 오랜 세월의 경과로 노후화 되고 최근 조성된 타 성씨 조형물에 대비되어 규모가 왜소하며 청주한문을 상징하는 조형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디자인과 기록내용, 규모 등을 보완해서 새롭게 개수했으면 좋겠다는 다수 일가분들의 평가와 의견이 있었다. 추태중앙회장의 공약 추진사업으로 금번에 새롭게 개수된 조형물은 높이 3.5m의 최대규격 기준으로 화강석과 오석을 재질로 하여 국내 유수의 조형물을 제작 시공한 CH조형연구소(대표 천종권)에서 설계와 제작을 하였다.

청주한문의 번영과 송조의 의미를 표상화한 본 조형물은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 중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작품으로 상단의 청주한씨 표기는 석봉체를 인용하였고 기록 내용도 확충 보완하였다. 시조부군의 은덕으로 100만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는 대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존의 조형물은 지난 9월 시조묘역으로 이전하여 기록유산으로 보존 전시하고 있다.

중앙회 종인상무의 사회로 연동수석부회장의 개식선언,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 및 회장단소개 후 조형물을 개축함에 많은 성원으로 적극 후원해 주신 대전시 중구 박원갑구청장과 디자인 설계와 시공을 맡아 열정으로 공사를 완공한 CH조형연

구소의 천종권대표에게 감사패 수여, 조형물 개수사업에 대한 경과보고, 중앙회장 인사, 축사 및 격려사, 제막, 갑수 대전회장의 유래비문 낭독, 폐식 및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다망한 가운데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원갑구청장, 백수현회장, 이영진목사와 효동고문을 비롯해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회장단과 일가분들께 감사의 전하고 뿌리공원의 조형물 개수에 관한 배경과 추진경과 등을 설명하는 한편 특별히 건립기금 전액을 헌성해 주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총재께 감사함을 전하였다. 이어 우리 중앙종친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회장단 및 임원분들을 중심으로 많은 일가분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어 종사를 차질 없이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표하고, 향후 무강왕릉 수호보전과 시조부군 세향 봉행 및 유물 유적의 수호 보전 등 중차대한 종사를 추진함에 지속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박원갑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청주한문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 으뜸의 명문이다. 오늘 종원분들의 단합된 모습에 또한 감명을 받았다. 이곳 뿌리공원 잔디운동장은 년1회 정도 문중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주한씨 문중에서도 이러한 기회의 활용을 통해 문중의 발전과 명성을 더욱 높여가길 바란다는 성원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효동고문은 1997년 10월 중앙회와 대전시종친회 및 한일석재 한근배대표의 도움으로 어렵게 세워진 조형물 건립 당시를 회

고하면서 좀 더 보완이 되고 명실상부 한문의 위상에 걸맞은 조형물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추태회장의 노력과 열정으로 훌륭하게 개수가 됨에 기쁘게 그지않다. 또한 장학회관 건립과 굴지의 장학재단으로 발돋움하게 노력한 추태회장의 노고에 큰 박수로 감사와 성원을 보내자고 독려 후 오늘을 계기로 명문 삼한갑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려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굳게 다짐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장소여건상 편의시설 없이 무더운 한여름 날씨임에도 일가간의 배려와 단합을 통해 모범된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마침에 청주한문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감사함을 새삼 느꼈다는 자평과 격려가 이어진 당일 제막식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으로 수고를 해주신 대전시종친회 일가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淸州韓氏의 由來

청주한씨(淸州韓氏)는 고조선 기자(箕子)로부터 배출된 마한왕조 원왕(元王)의 둘째아들 우랑(友諒, 上黨韓氏) 31세손 지원(智原)의 4남 중 3남이 시조로 한 란(韓蘭)이시니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서 탄생하시어 청주시 방서동에 정착 송(宋)씨를 배필로 맞아 광활한 무농평을 개척하고 무농평을 세워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등 공익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고려태조의 평양성 축조사업에 일익을 담당하시고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수 만석의 군량미를 제공하시며 직접 종군하여 큰 공을 세우시어 삼한개국벽상공신에 녹훈되시고 삼중대광 문하태위라는 최고의 관직에 오르셨으며 한 시대의 사표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시고 서세하시어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나라에서 위양(威襄)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삼한갑족인 청주한문은 삼한·고려·조선시대 국가의 중심인물인 한방신, 한상경, 한명회를 비롯하여 왕후, 상신, 공신, 대제학, 장군, 첨백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근·현세에는 을사보호조약을 끝까지 반대한 한규설참정대신, 3·1 운동 민족대표 한용운 선사 등 애국충정의 인물에 이어 한명숙·한덕수·한승수 3대를 연속해서 국무총리를 배출하였고 100만여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명문거족이다.

〈조형물 전면 각자 내용〉

작 품 명 : 송 조 - 崇 祖

조 각 가 : 천 종 권

작 품 설 명

청주한씨는 기자조선에서 기원하는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성씨이다. 이에 중앙의 로고를 중심으로 선대(좌측)와 후대(우측)의 만남이 서로 공존하며 송조 돈목함을 상징한다. 상단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가문의 영원한 번영을 조형적으로 표상화 하였다.

유래비 건립기금 헌성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韓鶴子) 총재

건립 추진 위원

위원장 : 楸泰 (중앙종친회장)

위 원 : 連東, 甲洙 외 14인

2019년 9월 28일

淸州韓氏中央宗親會

〈조형물 후면〉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2019 남북통일 희망 전진대회’ 개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
추태중앙회장, 한학자총재와 환담 및 감사패 등 전달



한학자총재(중앙)와 추태회장(중앙 우측) 및 임원 관계자

지난 9월 29일 추태 중앙회장은 ‘2019 남북통일 희망 전진대회’ 행사장인 강릉을 찾아 한학자총재와 환담 후 뿌리공원 조형물 개수 건립기금 헌성에 대한 감사패와 새롭게 조성된 청주한씨 상징 조형물 사진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청주한문을 더욱 빛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총재 한학자)은 ‘하나된 우리! 평화로 통일로 세계로!’란 슬로건으로 민간차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한·일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도약을 위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및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를 기원하는 ‘2019 남북통일 희망 전진대회’를 강릉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한학자총재를 비롯해 쉬페로 시구테 에피오피아 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외 UN 6개국 대사, 김성원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민단

을 대표해 양동준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총련을 대표해 하신기 일본 조선대학교 교수,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이기성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한국회장, 도쿠노 에이치 가정연합 일본회장, 황보군 조직위원장 등 정치·종교지도자, 지역대표 지도자, 강원·경기 도민 4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도약을 위한 행사로 개최하였다.

이날 한학자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올해 세계 76억 인류가 평화로운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참사랑을 기반으로 한 참 가정운동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없는 세계를 만들자”고 강조한 후 “1·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평화세계를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세계가 평화롭게 회복될 수 있다”며 “지금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환경을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세계평화고속도로, 피스로드 등을 통해 국경과 민족과 언어를 넘어 세계인들이 하나 되어 새 시대, 새 역사를 창건하자”고 평화세계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지금 한반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불매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일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한·일 관계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축전은 신영재 강원도위원의 대독을 통해 “이번 희망 전진대회가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및 제5 유엔사무국 유치 등 항구적 평화 모델 구축의 계기가 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회성공을 축하했다.

황보군 ‘2019 남북통일 희망 전진대회’ 조직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정신을 살리고자 강릉에서 개최되는 ‘2019 남북통일 희망 전진대회’와 평양에서 전

날 개최된 ‘피스로드 2019 통일대장정’이 긴장된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여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대회가 싸늘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위한 DMZ 세계평화공원과 UN 제5사무국 한반도 유치 기원의 의미도 담겨있다”고 밝힌 이날 대회의 마지막은 “평화통일과 평화이상세계 건설을 한 마음으로 결의하는” 성화봉송 의식으로 마무리됐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평화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올해 5월 1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애국시민 1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통일한국 희망전진대회를 열었고, 7월 21일에는 독립운동 중심지인 충남 유관순체육관에서 1만2000명 참가자 희망 페스티벌을 개최해 애국운동의 불길을 쏘아 올렸으며, 11월 10일에는 경상도권, 11월 13일에는 전라도권 희망 전진대회를 개최해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알바니아 서밋 및 축복식, 11월에는 캄보디아 정상회의 및 축복식, 대만 1만3000명 전진대회, 12월에 남아공 20만명 대회, 미국 WCLC 3만명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학자총재(중앙)가 평화를 염원하는 성화를 점화하고 있다

제11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성황리에 개최

「따뜻한 효심으로 통하는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효통! 즐거운 세상! 따뜻한 효심으로 통하는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제11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지난 9월 27일부터 3일간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뿌리공원에서 전국 성씨 문중자손과 관람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미있게 효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 등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내유일의 성씨테마공원인 뿌리공원에서 ‘우리 문중의 뿌리를 찾아서’ 3대가족이 함께 하는 효체험축제로서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둘째 날 28일의 문중입장 퍼레이드는 문중을 대표하는 위인과 그 유래를 소개하는 말과 함께 전국에서 모인 184개 문중에서 참여한 4,500여명 성

씨문중의 자손들이 각 문중을 상징하는 성씨깃발을 앞세우고 문중별로 상징되는 대표위인의 분장과 특색 있는 전통 복장 등을 갖추고 취타대와 함께 퍼레이드를 펼쳐 조상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많은 볼거리로 축제의 장관을 이룸으로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우리 청주한문은 3연속 국무총리 배출이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37번째로 입장했다.

세계 유일의 성씨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뿌리공원은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 1997년 11월 1일 개장한 가족친화 테마공원이며 도심 속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

랑하며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는 충효(忠孝)의 산 교육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125,000㎡의 면적에 244개의 성씨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성씨 문중에서 기증한 족보 등 사료를 전시하고 있는 한국족보박물관은 조상의 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종친간의 단합과 만남의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3일간의 뿌리축제는 개막행사, 문중행사, 문화행사, 전통행사 등 가족과 효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펼쳐져 참가자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가족 간의 사랑과 효(孝)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용갑 청장은 “효와 바른 인성을 알고,



세대간 소통으로 화합의 장을 이루어내는 효문화뿌리축제가 갈수록 축제의 품격을 높여가고 있으며 또 한번 기쁘고, 성공적인 축제로 가능하게 한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2019 만해축전 ‘자유·평등’ 주제로 다채롭게 열려

인종 · 종교 · 국가를 초월한 만해의 생명존중과 평화 사랑정신 선양

“한용운 선사는 청주한문의 위대한 선각자”

만해대상은 세계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에게 시상될 만큼 국제적 대상으로 평가...



제23회 만해대상 수상자와 관계자

청주한문의 위대한 선각자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 1879~1944)선사(禪師)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2019 만해축전」이 지난 8월 11일부터 4일간 강원도 동국대 만해마을캠퍼스 및 인제군 일원에서 국내

외 저명한 문인, 학자들과 수많은 시민,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평등”을 주제로 인종 · 종교 · 국가를 초월한 생명존중과 평화 사랑에 대한 만해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추모 문화제로 다양한 행사

들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는 선사, 시인, 독립운동가로 일생을 조국독립과 겨레사랑으로 일관, 20대 중반에 백담사로 출가 승려가 된 후 한국불교의 개혁과 대중화를 주창한 「조선불교유신론」을 펴내는 한편 시 · 소설 등의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개혁과 정신개혁을 주도하면서 1926년 88편의 시를 모은 그 유명한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 생명사상 · 사랑의 철학을 겨레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 참여해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나 애석하게도 조국의 광복 1년 전인 1944년 6월 2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壽牛莊)에서 별세했다. 비록 만해는 갔으나 그가 별세한지 75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그의 자유사상, 평등사상, 민족사상, 평화사상은 여전히 소중한 민족사적 덕목이 되고 있다.

만해축전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강원도, 인제군,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로 지난 1999년 백담사에서 시작된 후 2003년부터는 백담사 인근 6,600㎡의 부지에 광활하게 마련된 만해마을에서 해마다 다양한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 백일장, 서예대전, 시인학교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거행되고 있다.

12일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어 올해로 23회를 맞는 ‘만해대상’은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로 세계 각국의 국가원수들과 노벨상 수상자, 국제기구의 대표 등 저명인사들에게 시상될 만큼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의 평화대상인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 실천대상을 수상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예대상을 수상한 ‘고려대 김우창 명예교수’ 등 그동안의 수상자는 백수십명에 이르고 있다.

21회째를 맞는 금년 행사에서도 문화예술제,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식, 전국 고교생 백일장 등 학술세미나,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역대동행사, 시상식 및 추모행사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한용운선사 탄신 140주기

「제24회 만해추모제」생가지 일원에서 개최



만해추모제, 살풀이 춤 공연

지난 8월 29일 만해 한용운선사 탄신 140주년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이며 승려 시인으로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선사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면서 선사의 정신을 선양하고 추모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애郷심을 심어주고자 홍성문화원이 주최하고 홍성군, 충남, 충남서부보훈지청, 수덕사 등이 후원하는 제24회 만해추모제 및 추모음악회가 홍문표국회의원, 김석환홍성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들과 주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에 위치한 생가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의 축원과 함께

참석자들은 만해선사에게 헌향 · 헌다했으며 웅산 큰스님의 법어에 이어 ‘님의 침묵’의 시낭송이 진행 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승려 시인으로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선사의 나라 사랑 정신과 문학 세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홍성문화원의 유한동 원장은 추모제를 통해 선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양한 만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참석자 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월포공중중 감모재 및 사효각 지붕 개량공사



감모재 고유제 봉행 후 기념촬영

이조정랑공하 월포공중중(회장 광구)은 지난 10월 5일 광구회장, 현구청주회장을 비롯 종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방서동에 소재한 월포공(월日休, 21世) 재실인 감모재(感慕齋)와 사효각(四孝閣)의 지붕개량공사 완공을 기념하는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감모재는 청주시 수곡동에 있었으나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1991년 5월 방서동의 현 위치로 이전 개축을 하였다.

그동안 동절기 한파 등으로 지붕 기와가 파손되고 누수로 인한 부식을 우려해 2017년 부분 보수를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2018년 총회의 결의를 거쳐 2019년 5

월부터 공사 입찰 고시 후 공의 13대손인 임동(문화재수리 기능자격 보유)일가의 책임 하에 견실하게 지붕개량 사업을 완료하였다.

월포공은 1542년(중종 37년)생, 장원서별좌, 임진왜란 당시 임금이 용만 의주로 파견할 때 호가하시는 등 충절로 사헌부집의를 증직 받았다. 1614년(광해 6년) 졸, 가덕면 병암리 검암서원에 배향. 사효각은 청주한씨 문중에서 배출한 한준, 한사영, 한성, 한해집 등 4명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의 효행을 기려 세운 정려각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대중앙회장, 동수부회장 등이 참석해서 축하했다.

청한산악회 정기산행

천혜의 자연풍광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금강산 화암사 숲길



청한산악회(회장 삼랑)는 지난 9월 22일(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혜의 자연풍광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천년고찰로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 곳, 설악산의 끝자락 금강산 줄기의 마지막 능선이지만 남쪽에서는 신선봉(1312m)이 금강산 1만 2천봉의 첫 번째 봉우리이고 화암사는 8만 9천자의 첫 번째 암자가 되는 곳,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금강산 화암사 숲길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높지 않지만 뛰어난 경관을 지닌 화암사와 신선대(성인대 645m)는 울산암의 또

다른 모습과 매력적인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꿈을 만큼 조망이 뛰어나고 미시령 옛길과 동해 앞바다의 풍경도 볼 수 있는 곳이다.

당일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아름다운 전망을 조망하지 못함이 아쉬웠지만 색다른 빗속산행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하루 여정을 마쳤다.

한편 지난 8월은 계절적인 여건을 고려 신림동 강강술래 식당에서 중식모임을 한 후 인근 서울대공원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서울·수도권 청장년회 정기산행



서울·수도권청장년회(회장 상남)는 지난 8월 11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의 명산 도봉산으로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높이 740m의 도봉산은 교통이 편리하고 산세가 아름다워 사계절 두루 많은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8월의 계곡가는 무더위를 식히며 복잡한 일상의 찌든 잡념을 떨쳐내고 편안한 안식과 함께 오롯이 자연 속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한편 9월에는 용문에 있는 꼬부랑산(279m)을 찾았다. 야트막한 낮은 산으로 오르막길도 짧지만 그 길이 꼬불꼬불하여 꼬부랑산이라 불린다.

넷가를 끼고 있는 산책로는 봄철 벚꽃이 만개하면 더욱 기분 좋게 산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흑천 징검다리를 오가며 정겹게 산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점이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용문 5일장에(5일,10일) 맞춰 방문해서 장터 구경도 하고, 파전에 막걸리 한잔으로 마무리 한다면 환상적인 하루가 될 것 같은 꼬부랑산은 조용하게 자연을 즐기며 산행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코스이다.

운영회비(7~8월)		단위:원
이름	금액	
임개 부회장(몽계공파회장)	2,000,000	
용진 부회장(이양공파회장)	1,000,000	
진수 부회장(검교참판공파회장)	1,000,000	
기인 부회장(문정공파회장)	500,000	
동석 부회장(전교공파회장)	500,000	
만준 부회장(경남도회장)	500,000	
상우 부회장(세마공논산종중회장)	500,000	
치용 부회장(양혜공파회장)	500,000	
선희 운영위원(청양군회장)	400,000	
용완 운영위원(서울 종랑구)	400,000	
만우 자문위원(대전 서구)	200,000	
병동 자문위원(경주시회장)	200,000	
복섭 자문위원(전남 강진구)	200,000	
상근 자문위원(서울 금천구)	200,000	
상기 자문위원(인천 서구)	200,000	
영수 자문위원(서울 서대문구)	200,000	
재수 자문위원(경북 칠곡군)	200,000	
근준 운영위원(참의공하충지공파회장)	200,000	
동석 운영위원(충주시회장)	200,000	
삼렬 운영위원(고성군회장)	200,000	
상옥 운영위원(고창군회장)	200,000	
경남 이사(대전 동구)	200,000	
철희 이사(대전 서구)	200,000	
달섭 자문위원(서울 동작구)	100,000	
갑창 이사(전북 전주시)	100,000	
경완 이사(경북 경주시)	100,000	
기달 이사(서울 강북구)	100,000	
기운 이사(경북 경주시)	100,000	
기중 이사(서울 중랑구)	100,000	
대석 이사(경기 의정부시)	100,000	
동석 이사(경기 화성시)	100,000	
동진 이사(경기 화성시)	100,000	
상복 이사(충북 청주시)	100,000	
상호 이사(대전 서구)	100,000	
성욱 이사(서울 강북구)	100,000	
세동 이사(대전 서구)	100,000	
수창 이사(성동,광진구회장)	100,000	
영수 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영학 이사(경기 여주시)	100,000	
은수 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의구 이사(서울 용산구)	100,000	
인섭 이사(경기 광명시)	100,000	
천우 이사(전북 김제시)	100,000	
합 계	11,900,000	

단체종보비(7~8월)		단위:원
이름	금액	
세마공논산종중	300,000	
검교참판공파종중	200,000	
진주시종친회	200,000	
하다리종중	200,000	
낙안공종중(복섭)	100,000	
문양공파내동종중	100,000	
송탄종친회(수동)	100,000	
청양군종친회	100,000	
합 계	1,300,000	

일반찬조헌성금(7~8월)		단위:원
이름	금액	
하다리종중	200,000	
합 계	200,000	

개인종보비(7~8월)		단위:원
이름	금액	
기설(서울 강동구)	100,000	
기황(서울 영등포구)	50,000	
상옥 운영위원(고창군회장)	50,000	
원교(서울 송파구)	50,000	
홍수(서울 도봉구)	50,000	
갑준(서울 성북구)	30,000	
귀남(전남 나주시)	30,000	
기인 부회장(문정공파회장)	30,000	
만준(강원 원주시)	30,000	
삼덕(충남 청양군)	30,000	
상모(전남 구례군)	30,000	
성두(울산시 북구)	30,000	
성수(서울 광진구)	30,000	
재영(대구 수성구)	30,000	
천석(서울 종로구)	30,000	
덕근(둔촌)	20,000	
두현(대구 북구)	20,000	
명수(경기 고양시)	20,000	
범수(강원 춘천시)	20,000	
상동(강원 횡성군)	20,000	
승언(경기 용인시)	20,000	
승욱(전북 전주시)	20,000	
영수 이사(경기 김포시)	20,000	
웅섭(경기 성남시)	20,000	
의성(경기 화성시)	20,000	
판경(대구 달서구)	20,000	
희수(서울 동작구)	20,000	
기록	10,000	
양석(충남 당진시)	10,000	
장수(서울 금천구)	10,000	
재규(서울 용산구)	10,000	
합 계	880,000	

장학금 납부내역(7~8월)				단위: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1771	광주쌍효종중	3,000,000	6,000,000	
1404	갑수(대전 서구)	2,000,000	7,430,000	
2234	태규(대전 동구)	1,000,000	1,000,000	
2235	만석(대전 서구)	1,000,000	1,000,000	
2179	박경옥(경북 구미시)	550,000	2,100,000	
2180	가람(경북 구미시)	550,000	2,100,000	
2181	웅희(경북 구미시)	550,000	2,100,000	
808	하다리종중	500,000	7,300,000	
122	기인(경남 창원시)	200,000	15,200,000	
2100	정옥(대전 대덕구)	200,000	500,000	
1978	동욱(충남 계룡시)	150,000	690,000	
1971	수교(충남 계룡시)	100,000	700,000	
738	기설(서울 강동구)	100,000	250,000	
834	기영(강원 강릉시)	20,000	760,000	
186	장호(전북 무주군)	20,000	350,000	
2236	경석(경기 시흥시)	20,000	20,00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10,000	660,000	
457	재규(서울 용산구)	10,000	410,000	
1718	상희(전북 전주시)	10,000	221,000	
354	양석(충남 당진시)	10,000	60,000	
합 계		10,000,000		

특별헌성금(뿌리공원조형물 개수)		단위:원
이름	금액	
학자(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회 총재)	50,000,000	
추태 중앙회장	2,000,000	
청한산악회(회장 삼랑)	1,000,000	
동수 종무부회장(경기 안산시)	300,000	
근준(참의공하 충지공파회장)	200,000	
연동 수석부회장(대전 중구)	100,000	
합 계	53,600,000	

문정공부군 불천위 기신제 봉행

정기총회에서 신임 석구회장 선임



문정공파종중회(회장 기인)는 지난 9월 17일 (음 8월 19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위치한 경모재에서 기인회장을 비롯해 5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정공(휘 계회)부군의 537주기 기신제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태구일가, 아헌관에는 상렬일가, 종헌관에는 양호일가가 각각 분방되었으며 鍾顯영흥공파회장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제례 봉행 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기인회장 후임으로 신임 석구회장을 선임하였으며, 신임 감사에 동춘일가와 기선일가를 선임한 후 부회장, 이사 등 집행부 임원을 새로이 개설했다.

문정공부군은 문간공(휘 상경)의 손자이며 관찰사 혜(惠)의 아들로 1423년 (세종 5년)에 청주에서 태어나셨으며 字는 子順이다. 1441년(세종 23) 진사시에 합격하고, 1447년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 승문원정자에 보임되었다가 곧 집현전정자로 뽑혔다. 이어 부수찬·지제교로서 경연관(經筵官)을 겸하고 부교리에 이르렀다. 세조가 즉위한 뒤로 신임을 두터이 받아서 1455년(세조 1) 우문학으로 세자에게 경학을 가르쳤다.

이듬해 좌필선·집의, 1457년 예문관직제학·지제교 겸 춘추관기주관으로 문한의 직을 역임한 뒤 세자우보덕

(世子右輔德)을 겸하였다. 1458년 좌보덕·병조지사(兵曹知事)·참의, 1460년 우승지, 1461년 좌승지·공조참판·중추원부사, 1462년 이조참판으로서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을 겸하였다. 이듬해 인순부윤(仁順府尹)을 거쳐 1465년 이조판서, 1467년 중추부사가 되었다. 1468년 세조가 병환이 심할 때 약을 조제하는 임무를 맡았고, 죽기 전날에는 세조의 지시로 대보(大寶: 임금의 인장)와 곤면(袞冕: 임금의 정복)을 세자에게 전수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1469년 예종이 즉위하자 남이(南怡)를 제거한 공으로 추충정난익대공신(推忠定難翼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서원군(西平君)에 봉해졌다. 이듬 해 성종이 즉위해서는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하고, 1471년(성종 2)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1478년 좌찬성에 이르렀다.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서 세종 때 집현전 장서각(藏書閣)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박람강기(博覽強記)로 쌓은 학식이 벼슬길에 큰 바탕이 되었다. 학식과 단정한 성품으로 주위로부터 추앙되어 존중히 여김을 받았으며, 특히 서거정(徐居正)과 교분이 두터웠다. 1482년(성종 13년) 졸하셨으며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충남종친회 신임 격동회장 선임



충남종친회는 지난 8월 1일 천안소재 대명가에서 격동, 석전회장 등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격동회장(앞줄 중앙)의 취임 축하하는 환영모임을 개최하였다.

격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가분들과 상부상조하고 송조돈목을 통해 종친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지역회장단협의회 8차회의 개최

현안 논의 및 상위종중 대표의 회장단 참여 건의

전국 광역시·도 회장단협의회(회장 갑수)는 지난 9월 8일 갑수회장을 비롯하여 명수, 광수, 기천, 동경, 태락회장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주소재 성미당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영교 전북회장의 환영사, 갑수회장과 충남의 격동신임회장의 인사에 이어 종사 현안에 대한 논의 후 앞으로도 더욱 화합 단결하고 오는 9월 뿌리공원의 조형물 제막식과 10월 28일의 시조부군 세향 봉행 등 중앙회 추진사업에도 전종원이 적극 동참하고 성원토록 독려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으며 상위종파문중회장이 중앙의 모든 회의에 참석토록 회장단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중앙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전주비빔밥과 전통음식을 곁들여 식사 후 영교회장의 안내로 800여 채의 전통 한옥과 경기전, 풍남문, 전주향교, 오목대와 이목대, 한벽당 등 많은 문화재와 도시 속 한국의 옛 전통을 찾아 볼 수 있는 전주의 관광명소 한옥마을과 사적 제288호이자 호남지역 최초인 로마네스



크 양식의 건물인 전동성당, 남부시장 등을 둘러보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차기 회의는 12월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청한예학회 역사 문화유적 탐방

안동지역의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학봉종택 등



유성룡 종택 방문기념

청한예학회(회장 의구)는 지난 7월 6일 기호고문을 비롯 의구회장, 범구총무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안동지역의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학봉종택 등을 찾아 역사 문화유적 탐방을 다녀왔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안동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은 풍산류씨가 600여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며, 와가(瓦家)와 초가(草家)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조선시대 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마을 이름을 하회(河回)라 한 것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되었다.

퇴계선생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곳, 한국 정신문화의 성지인 사적 제170호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한 도산서원

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574년(선조 7)에 지어진 서원으로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퇴계의 품격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1575년(선조 8)에 한석봉이 쓴 "도산서원"의 편액을 하사 받음으로써 사액(賜額)서원으로서 영남유학의 총 본산이 되었다. 이어 학봉(김성일선생)종택과 국내에서는 가장 긴 목책 인도교인 안동호의 월영교 등을 둘러본 후 지역 특산음식인 햇제사밥과 간고등어로 식사 후 귀경길에 올랐다. 의구회장은 역사탐방을 통해 다양한 식견을 넓히고 친목 도모를 통해 종사운영에도 기여하는 청한예학회 조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하는 한편 안내를 맡아 수고해준 대구경북태락회장과 집행부 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상혁변호사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한상혁일가(사진, 공안공파 32세)가 지난 9월 9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 일가분들의 많은 축하를 받고

있다. 제40회 사법고시로 늦은 나이인 40세에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한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변호사 출신으로 이른바 '삼성 X파일사건'에서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MBC 자문역을 오래 맡은 것이 계기가 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를 맡았으며 추진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8월까지 4기 방통위를 이끌어 갈 한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 및 극단적 혐오표현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준수(전)연기군수가 부친 이시다.

〈주요 약력〉

△충남 청양 △대전고, 고려대 법학과, 중앙대 언론학 석사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위원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文簡公부군 (諱 尙敬, 12世) 影幀 實見



문간공파종중회(회장 동수)는 지난 7월19일 성익재정이사(의)의 추진으로 東秀 회장, 貞錫고문, 辰洙부회장, 懿九, 相煥 감사, 貞東, 培洙, 範九, 一鎬이사, 有洙 전총무, 相烈상임부회장, 明燮총무이사, 成益재정이사(의)가 함께한 가운데 國立中央博物館에 寄託되어 있는 문간공부군 影幀을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實見 하였다.

자는 숙경(叔敬), 호는 신재(信齋), 시호가 문간(文簡)이신 한상경 선조는 1382년(우왕8)문과에 급제하여 예의좌랑, 우정언, 종부령을 거쳐 1392년(공양왕4) 밀직사우부대언에 승진하였고, 이 해에 이성계가 개국하자 추대의 공으로 익대개국공신 3등에 책록 되시었다.

이후 1396년(태조5)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지고, 1399년(정종1)에 경기좌도 도체찰사가 되었다가, 태종 때에는 이조판

서를 거쳐 우의정,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의 인품은 늘 청백하였고 사람을 기용하는데 공정했으며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하며, 글씨를 잘 썼다고 한다.

문간공부군 영정의 작화 계기는 개국공신으로 책봉되어 왕명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보이나, 이 화폭에 남아있는 이경석(李景奭)의「畫像贊」을 보면 “澁工重摸 臨寫于眞(인공중모 입사우진)”이라는 구절이 있어, 이 상은 원본인 개국공신상을 17세기에 중모한 것으로 추정 된다. 1998년 4월 13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6호로 지정되어, 경기도 남양주시 청주한씨문간공파 종가 사당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 사당에는 모사본 영정이 봉안되어 있고 실제 영정은 도난 등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매2년 마다 갱신 기탁되고 있다.

(문간공종중 상렬부회장)

시조 태위 위양공부군 기해년 세향 공고

“당일 참사하시는 일가분들께 중식을 준비해 드립니다”

- 일 시: 2019년 10월 28일 (음력 10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시조부군 묘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47번지)
- 의 례: 시조 세향, 4위단 (2·3·4·5세조) 세향 봉행
- 참석범위: 국내외 거주 청주한씨 남녀노소 전 종원
- 식전행사: 중앙회장 인사, 내빈 축사 및 격려사

【대중교통 이용 안내】

청주시 가경동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미원행 또는 문의행 버스를 타고 고은삼거리에서 하차하여 대청댐 방향으로 약 200m 걸어가면 암석에『청주한씨 시조부군 묘소 입구』라고 새겨진 입석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1km정도 이동하여 공군비행장 정문 앞에 오시면 시조부군 묘소가 보입니다. 시조부군 묘역에 도착한 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세향을 봉행할 수 있도록 안내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지역은 당일 오전 8시 정각에 중앙종친회 사무실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 약 도 •



(청원-상주 고속도로 문의IC 출구에서 우회전 후 약 4km정도 오시면 시조묘역 표석 앞 삼거리 연결)

청주한씨 종중밴드 모임 소개



시조묘역 정화사업 등 추진

청주한씨 일가들로 구성된 종중밴드 모임에서 시조묘역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표리더인 기태(정해공파 29세)회장을 비롯 6명의 공동리더를 주축으로 현재 전국에서 250여명의 일가들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의 네트워크모임을 통해 뿌리를 찾고 선조님을 숭모하며 일가간의 존중과 사랑을 나누며 청주한문의 후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선조님의 음덕에 보은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멤버들의 제안으로 시조묘역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지난 4월 초 시조묘역에 모여 잡초제거와 주변 청

소 및 정리 후 유실수 50그루를 식수하였다. 이어 5월에는 텃밭을 정비하여 주말 농장을 하기로 하고 농작물과 고구마 등을 심어 재배한 후 그 수익금과 후원금을 모아 시조묘역의 잔디 정비작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비록 시작은 소소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되었기에 힘이 들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임하고 있기에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일가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그 결실의 대소를 떠나 큰 보람으로 귀결되리라 믿는다. 일가들과 함께하며 지역과 공간을 넘나들며 청주한문의 역사와 유래, 종중 소식, 애경사, 공지사향 등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과 사랑을 나누는 밴드모임에 일가분들의 많은 동참과 성원을 기대한다.